

## 육우산업 편

# 단기적으로는 몹시 어려우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발전 기대



진 교 복  
복일농장

1990년 우리나라 육우산업을 전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최근 국제통상상의 상황으로 볼 때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통상 정책의 의지로 볼 때 불투명하면서도 어둡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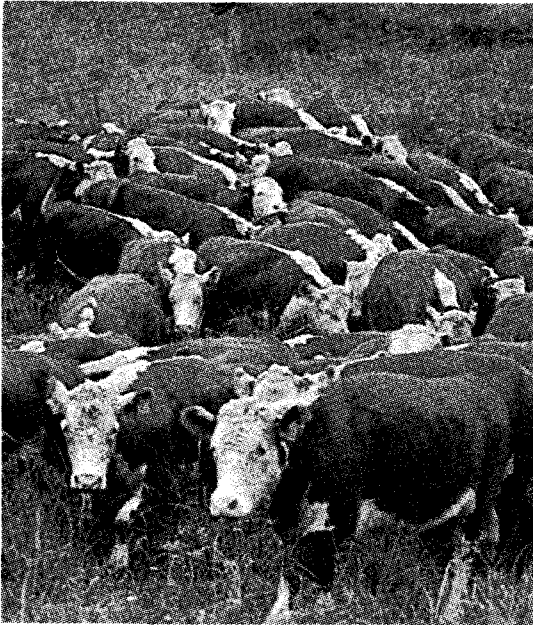
첫째, 수입쇠고기의 양은 몇대로 늘리기만 하고 국내 소값이 떨어져도 수입쇠고기 방출은 변함이 없고 계속 들어가기만 한다. 1989년도 소비추세를 보면 50:50이 틀림없다. 또 매년 수입쇠고기는 5,000톤씩 수입량이 증가되리라고 생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수입쇠고기 방출이 50%이며 방출가격은 국내 쇠고기값의 50%이다. 그러므로 이런 여건에서 국내 육우산업의 전망은 강건너 불을 보는 것과 같을 수밖에 없다. 또한 수입 쇠고기의 유통은 그 내용과 실상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한우 쇠고기로 둔갑하여 소비되고 있는데 정육점에서 또는 음식점에서 한우쇠고기로 둔갑되어 소비되고 있는 것이 상식인데도 정부나 소비자는 이를 방치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육우의 산지가격이 10%만 오르더라도 정부는 비상이 걸린다. 이렇게 비상이 걸리면 수입쇠고기 방출을 무제한으로 늘리고 또 그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산지 소값을 떨어뜨리는데 혈안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보아온 축산정책의 실상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정책이 지속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수입쇠고기 정책은 육우 사육자에게는 하등의 도움도 되지 않고 피해만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계속 수입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인력난이다.

농촌 노동력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축산농가의 인력을 구하기란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설사 구해진다 하더라도 보수가 대단히 높다. 한마디로 경기 좋은 공업화에 기준된 보수이기 때문에 축산농



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경영수지를 외면할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나마 축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구할수가 없다. 따라서 자가인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규모로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시설을 개선하고 기계화하면 해결이 어느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 앞에서 말한 우리나라 농촌정책은 물론 축산정책이 불안정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 압력 등 모든 문제가 불안스럽기 때문에 시설개선이나 기계화의 투자가 망설여지고 있다. 때문에 사육규모를 자가노동력에 알맞게 줄어나갈 가능성이 가장 많다.

셋째, 축산폐수 문제이다.

축산폐수는 수 개월전 수질오염이 일대 사회문제화 되면서부터 수질오염원이 공업폐수나 생활폐수로 인한 것이 일반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했다가 수질오염이 대대적인 사회문제로 야기되자 마치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인 것처럼 전국적으로 축산인을 구속하고 이것으로 야기된

사회문제를 진정시키는데 축산인들이 희생양이 되었다.

“소”를 비롯 축산의 분류는 귀중한 퇴비이면서 산성화된 농지의 지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는 자원이데도 엄청난 공해로 잘못 다뤄지고 있는것이 매우 안타깝기만 하다. 소를 사육하는 축산인은 농지를 가지고 일반농업을 겸하고 있거나 사료작물포로 이용하고 있고 또한 인근 고등원예농가나 일반농가에 나누어서 귀중한 비료로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지의 지력이 향상되고 땅이 기름져 가고 있다. 축산지대의 농지와 기타지대의 농지는 한눈으로도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일부 축산농가가 도시근교에서 자기 농지없이 축사시설만 가지고 분료를 하천에 방류시키는 상식이하의 농가가 간혹있다. 그러나 예고도, 경고도, 지도계몽도 없이 일시에 구속하여 혹독하게 다루어서 마치 수질오염의 주범인듯, 축산을 하는 것이 마치 무슨 범죄행위를 하는 것처럼 사회가 오인하도록 만들었다. 이로인해 축산농가 거의가 축산을 포기하든가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넷째, 유통상의 부조리다.

대표적인 것이 강제급수다. 강원도에서 구입한 소를 전라도로 원거리 운반을 해서 도살한다. 이것은 범죄행위를 할 수 있는 연고지로 차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유통된 쇠고기가 식탁에 오를때는 고기반 물반이다. 이러한 불법 유통이 상식화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일부지방 우시장이 이런 범죄행위를 하기 쉽도록 도와주고도 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 5일마다 서는 장날을 당일 아침에 개장해서 거래하여서는 불법 강제급수를 할 시간이 부족하므로 전날 오후부터 개장하여 거래를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오후에 거래된 육우를 밤새워 연고지로 이동하여 편리하게 부조리가 감행될 수 있도록 구조변경을 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로인해 소 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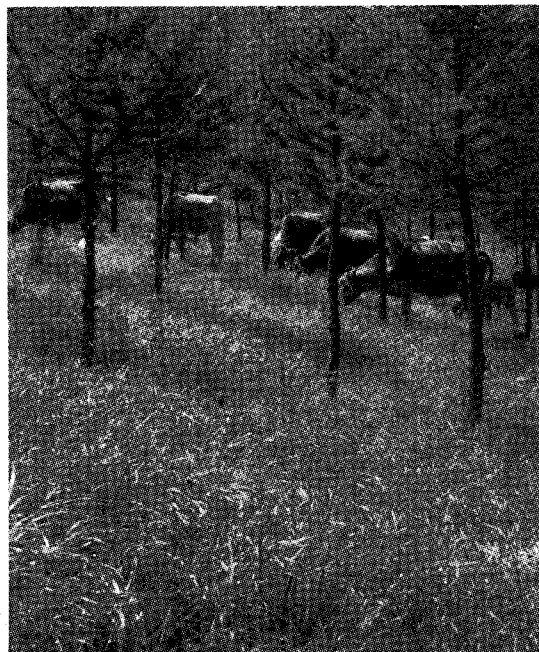
리당 지육 40kg이 증가된다고 한다. 즉 물 40kg이 지육 40kg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러한 우시장의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무엇을 감독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한 생각뿐이다.

또한 음식점에서 조리하는 쇠고기 역시 고기반 물반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는데도 이를 감독하고 있는 관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이 식품위생이나 어떤 차원에서 합당한 것인지, 물반 고기반 섞어서 고기값으로 받는 것이 공정거래나 부당이득 또는 폭리차원에서 용납될 수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수입 쇠고기는 거의 전량이 한우 쇠고기로 둔갑이 되고 한우쇠고기는 부조리 유통을 거쳐 물이 섞이고 요리상에 물섞인 고기가 올라오므로 해서 취해지는 부당이득이 그 얼마인지 생각할수록 한심스러운 현실이다.

또한 전국의 도축장 실정을 한번 살펴보자.

대도시 도축장은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시설이 완비되고 규정대로 계류후 도살하여 도매처리가 되고 있으나 축주(정육업자)의 위탁도살이 불가능하고 지방 도축장은 도매기능이 없으므로 정육업자가 구입한 소를 도살해주는 것으로 그친다. 따라서 거의 계류시설이 불충분하다. 대도시 도축장에서 위탁도살이 안되는 이유로는 지방 도축장에서 도살하여 지육 혹은 정육으로 대도시로 반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유통상의 부조리가 성행되는 커다란 명분이 된다. 이것 역시 당국의 실행으로 어느때는 지방 육 반입이 금지되었다가 어느때는 또 다시 허가가 되어 어느쪽이 합법적인지 어느쪽이 불법적인지를 분간할 수조차 없다. 상식적 차원에서는 생소를 직접 대도시로 반입하여 그 지역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보다 더 신선한 고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하여지지 않는지 이



해하기가 어렵다. 이와같이 허다하게 외적인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축산인에게 내재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육우산업을 사료자급 차원에서 한번 고찰해 보자.

크게 분류해서 농후사료와 조사료로 나눌수 있는데 농후사료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 왔다. 그래도 조사료만은 국내 부존자원으로 충당되어 오다가 인건비의 상승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최근에는 조사료마저 상당량 수입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축산인 모두가 서로 수입조사료를 공급받기 위해 앞을 다투고 있는 실정임을 볼때 한심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다. 한마디로 모두가 수입에 의존한다면 소를 사육해야 하는 명분을 상실하는 것이다. 농후사료 조사료 모두를 수입해서 소를 사육하고 거기에다 축산폐수로 인해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산 원가마저 축산선진국보다 2~3배 비싸다면 과연 소를 계속 사육해야 하는 명분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쯤 축산인 스스로 냉정히 반성해 봐야하지 않겠는가!, 값이 더 먹고 인력에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조사료만큼은 우리나라 부존자원을 이용해서 충당시켜야만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이라도 유지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이런 자세도 유지못하면서 계속적인 요구만 할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축산인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반성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90년대 우리의 축산(비육우)은 첫째, 통상압력, 둘째, 정치적 불안정, 셋째, 유통부조리 등등의 이유로 육우송아지 생산의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으며 기반은 농촌의 농가부업으로 한우 압소 2~3마리 사육농가가 대부분이었는데 거의가 사육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육우를 다두 사육하는 농가도 폐업내지는 규모 축소쪽으로 가고있는 현상이다. 때문에 홍수출하, 홍수방매 현상으로 가격하락

의 사태가 올 것이고 계속되는 수입쇠고기로 말미암아 국내 사육두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가격하락을 부채질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몹시 어둡다고 생각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발전이 기대된다 하겠으나 단기적인 악순환이 여러차례 지나간 다음에서야 안정된 발전이 이뤄지리라 생각된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묵묵히 소산업을 지켜가야만 국가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할 것이며 축산업이 발전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전국 농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각 농민단체 임직원 여러분과 전국 농민대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기필코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농촌의 거대한 발전과 안정된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 토막상식

### 일본 젖소 사육동향

#### 생산의욕 향상으로 1% 증가

일본 농수성이 발표한 1989년 8월1일 조사의 젖소 사육동향을 보면 총두수는 208만5000두로 전년에 비하여 1%증가, 우유제품의 수요가 계속 호조로 생유의 생산조정이 완화하였으므로 생산의욕이 향상되어 경산우는 129만 1,000두(2%증) 미경산우 79만4000두(1%증)로 각각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는 2세우가 우량후계우 확보로 27만2000두(5%증), 월별 분만 두수는 88년 8월~89년 1월이 53만6000두(3%증) 89년 2월~7월이 54만7000두(1%증)다.

#### 일본 사료공장 승인제 폐지

일본 농수성은 배합사료제조공장의 승인 공장제도에 관한 농수성의 추천제를 1989년 9월30일 한으로 폐지하였다. 쇠고기의 수입자유화에 따른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배합사료비 인하와 유통합리화를 목적으로 승인공장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10월1일부터 배합사료 공장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면세원료의 횡령방지 기준만 갖추면 세관장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